

Mexico 1 - 0 South Korea — 데이터 기반 전술 칼럼 (20260619)

템포 격차가 만든 1-0, 점유의 허상과 속도의 실체

패스가 쌓인 시간과 골이 태어난 순간 사이에는 종종 간극이 존재한다. 2026년 6월 19일, 멕시코와 대한민국이 맞붙은 이 경기는 그 간극이 얼마나 결정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최종 스코어는 1-0, 멕시코가 승리를 가져갔다. 표면적으로 대한민국이 58%의 점유율과 579회의 패스, 그리고 9개의 슈팅을 기록하며 경기를 주도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 90분의 진실은 공을 오래 소유한 쪽이 아니라, 짧은 순간을 더 날카롭게 활용한 쪽에 있었다.

멕시코는 42%의 점유율과 429번의 패스, 8개의 슈팅에 그쳤지만, 후반 50분 루이스 로모의 한 방이 경기의 균형을 꺾었다. 이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멕시코는 느린 빌드업이나 점유에 집착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 빠르게 박스 안을 공략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대한민국은 더 많은 패스와 진입 횟수(최종 3분의 1 진입 72회)를 쌓았지만, 이 과정이 상대 박스 안에서의 위협으로 직결되지 못했다. 두 팀의 공격 템포와 전개 효율의 격차가, 결국 스코어보드의 1골 차로 응축된 셈이다.

이 경기는 단순히 점유율의 싸움이 아니라, 템포와 효율성의 대결이었다. 대한민국의 긴 점유와 높은 패스 성공률(486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짧고 직선적인 공격이 더 큰 실질적 위협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이 1-0의 본질을 설명한다.

템포와 효율의 분기점: 멕시코의 공격 방식이 만든 실질적 위협

멕시코와 대한민국의 경기에서 가장 날카롭게 갈린 지점은 공격을 전개하는 방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템포와 효율의 차이였다. 대한민국은 58%의 점유율과 579회의 패스, 최종 3분의 1 진입 72회를 기록하며 볼을 오래 소유하고 넓은 지역을 활용했다. 반면 멕시코는 42% 점유율, 429회의 패스, 44회의 최종 3분의 1 진입에 그쳤지만, 이 숫자 뒤에는 전혀 다른 공격의 구조가 숨어 있었다. 대한민국이 점유와 패스 네트워크를 통해 경기를 풀었다면, 멕시코는 단순하고 빠른 종결에 집중했다. 이 두 스타일의 충돌이 어떻게 경기 내내 흐름을 갈랐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공격 시퀀스의 시작: 깊은 지역에서의 빌드업과 단순 전개

대한민국은 후방에서부터 짧은 패스로 빌드업을 시작했다. 486회의 성공 패스와 579회의 패스 시도, 그리고 91%에 육박하는 주요 수비수(김민재)의 패스 성공률은, 팀 전체가 낮은 지역에서부터 공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후방 3백과 미드필더 라인을 활용해 점유를 유지했고, 좌우 윙백까지 폭넓게 넓히며 상대의 압박을 분산하려 했다. 하지만 이 빌드업이 상대 진영 깊은 곳, 특히 박스 근처에서의 실질적 위협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72회의 최종 3분의 1 진입은 많은 숫자이지만, 실제로 박스 안에서의 터치(9회)나 유효 슈팅(2회)으로 이어진 빈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멕시코는 정반대였다. 429회의 패스 중 350회만이 성공했고, 전체적으로 긴 점유보다는 상대 진영에 진입하자마자 빠르게 종결을 시도했다. 수비진이 공을 잡는 순간, 중원에서 2~3번의 짧은 연결만 거친 뒤 곧바로 전방으로 패스가 투입됐다. 이 직선적인 전개는 공격의 복잡성을 줄이는 대신, 상대 수비가 정렬되기 전 박스 안을

공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멕시코의 박스 내 터치 수(6회)는 대한민국보다 적지만, 이 중 5번이 슈팅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효율의 차이를 설명한다.

전개와 종결: 패스 네트워크의 밀도 vs 박스 내 종결력

대한민국의 공격 전개는 다층적이었다. 최종 3분의 1에서 72회나 진입했고, 크로스 시도(9회)와 그 성공률(55.6%) 역시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이 박스 안으로 직접적으로 투입되기보다는, 측면과 중앙을 반복적으로 오가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실제로 3번의 빅 찬스를 만들었지만, 모두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특히 슈팅이 박스 안 6회, 박스 밖 3회로 분산됐고, 9번의 전체 슈팅 중 4번이 빗나갔으며 3번은 블록에 막혔다. 이는 공격의 시작은 좋았으나, 종결 단계에서 결정력이 떨어졌다는 방증이다.

멕시코는 8번의 슈팅 중 5번이 박스 안에서 나왔고, 4번이 유효 슈팅이었다.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복잡한 패스 네트워크 대신, 빠른 템포와 단순한 전개로 상대 박스 안을 노렸다. 빅 찬스 2회 중 1회를 득점으로 연결했고, 나머지 1회도 골문과 근접한 위치에서 시도됐다. 멕시코의 공격은 짧고 단순했지만, 박스 내에서의 효율과 결정력은 대한민국보다 분명히 앞섰다.

팀 통계 비교표

지표	Mexico	South Korea
포메이션	4-3-3	3-4-2-1
팀 평점	6.8	6.6
점유율(%)	42	58
기대득점(xG)	0.5	0.7
전체 슈팅	8	9
유효 슈팅	4	2
박스 안 슈팅	5	6
빅 찬스	2	3
코너킥	0	2
파울	9	7
패스 시도	429	579
성공 패스	350	486
최종 3분의 1 진입	44	72
태클 성공률(%)	50	61
듀얼 승률(%)	46	53

이 표가 말해주는 것은, 대한민국이 점유와 패스, 최종 3분의 1 진입에서 모두 앞섰지만, 슈팅의 질과 박스 내에서의 효율, 그리고 유효 슈팅에서는 멕시코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이 만든 xG(0.7)가

멕시코(0.5)보다 약간 높지만, 실제 골망은 멕시코가 흔들었고, 유효 슈팅에서도 멕시코가 2배를 기록했다. 이는 공격의 양과 질이 일치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슈팅 분포와 박스 내 이벤트: 효율의 본질

슈팅 지표	Mexico	South Korea
전체 슈팅	8	9
유효 슈팅	4	2
골	1	0
박스 안 슈팅	5	6
박스 밖 슈팅	3	3
주요 슈팅 지역	중앙 박스 밖 근거리(3), 중앙 페널티 박스 안(3)	중앙 박스 밖 근거리(3), 중앙 페널티 박스 안(3)

슈팅 분포를 보면 양 팀 모두 중앙 박스 밖 근거리와 중앙 페널티 박스 안에서 비슷한 빈도로 슈팅을 시도했다. 그러나 멕시코는 8개의 슈팅 중 4개를 유효 슈팅으로 연결했고, 이 중 1개가 골로 이어졌다. 반면 대한민국은 9개의 슈팅 중 유효 슈팅이 2개에 불과했고, 득점에는 실패했다. 박스 안 슈팅은 대한민국이 6회로 멕시코보다 1회 더 많았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이 블록이나 빗나감으로 마무리됐다. 멕시코의 박스 내 슈팅은 적지만, 그 효율성에서 차이가 났다.

크로스과 세트피스: 전개 방식의 한계와 가능성

대한민국은 크로스 시도 9회 중 5회를 성공시키며, 측면을 활용한 공격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 코너킥도 2회 기록했다. 그러나 이 크로스과 세트피스가 실제로 박스 내에서 위협적인 기회로 이어진 빈도는 낮았다. 멕시코는 크로스 시도 5회 중 3회를 성공시키며, 적은 숫자 속에서도 효율을 보였다. 특히 멕시코의 크로스 성공률(60%)은 대한민국(55.6%)보다 소폭 높았고, 이 중 한 번이 결정적인 골 장면으로 연결됐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2번의 코너킥과 9번의 프리킥을 얻었지만, 이 중 직접적인 득점 기회로 이어진 장면은 드물었다. 멕시코는 코너킥이 없었고, 프리킥도 7회에 그쳤다. 두 팀 모두 세트피스에서 결정적 돌파구를 찾지 못했으나, 멕시코는 오히려 오픈 플레이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냈다.

결정적 장면: 루이스 로모의 50분 골, 효율의 상징

이 경기의 분기점은 후반 50분, 멕시코의 루이스 로모가 중앙 페널티 박스 안에서 오른발로 마무리한 골 장면이었다. 이 시퀀스는 멕시코의 공격 방식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동했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전개 과정에서 멕시코는 짧은 패스 두세 번 만에 중원을 통과했고, 대한민국 수비가 정렬되기 전에 빠르게 박스 안으로 침투했다. 박스 내에서의 터치가 곧바로 슈팅으로 이어지며, 로모는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 장면은 멕시코가 전체적으로 보여준 공격의 평균과도 일치한다. 멕시코는 8번의 전체 슈팅 중 5번을 박스 안에서 시도했고, 유효 슈팅 4번 중 1번이 바로 이 골이었다. 반면 대한민국은 박스 안에서 더 많은 터치를 기록하고도, 종결 단계에서 결정력 부족으로 고전했다. 결국, 이 한 번의 짧고 날카로운 시퀀스가 90분의 균형을 깼

셈이다.

왜 멕시코가 이겼는가: 효율의 데이터, 그리고 한 번의 완성

멕시코의 승리는 점유율이나 슈팅 개수, 혹은 기대득점 수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아래 팀 통계표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점유율 58%에 패스 시도 579회, 박스 안 슈팅 6회, 빅 찬스 3회를 기록했다. 멕시코는 점유율 42%, 패스 시도 429회, 박스 안 슈팅 5회, 빅 찬스 2회로 뒤졌다. 기대득점(xG)조차 대한민국이 0.7, 멕시코가 0.5로, 수치상으론 오히려 대한민국이 우위였다.

지표	Mexico	South Korea
포메이션	4-3-3	3-4-2-1
팀 평점	6.8	6.6
점유율(%)	42	58
기대득점(xG)	0.5	0.7
전체 슈팅	8	9
유효 슈팅	4	2
박스 안 슈팅	5	6
빅 찬스	2	3
코너킥	0	2
파울	9	7
패스 시도	429	579
성공 패스	350	486
최종 3분의 1 진입	44	72
태클 성공률(%)	50	61
듀얼 승률(%)	46	53

그러나 이 경기의 실질적 분기점은 공격의 '질'과 '종결의 효율'에 있었다. 멕시코는 적은 찬스 속에서도 박스 안에서의 슈팅 비중이 높았고, 실제로 8번의 슈팅 중 5번을 박스 안에서 시도했다. 유효 슈팅 비율도 50%에 달했다(4/8). 반면 대한민국은 9개의 슈팅 중 6개가 박스 안에서 나왔지만, 그 중 골로 연결된 장면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빅 찬스 3개 모두 무산됐고, 결정적 순간마다 슈팅이 골키퍼 정면이거나 수비에 막혔다.

슈팅 지표	Mexico	South Korea
전체 슈팅	8	9
유효 슈팅	4	2
골	1	0

슈팅 지표	Mexico	South Korea
박스 안 슈팅	5	6
박스 밖 슈팅	3	3
주요 슈팅 지역	중앙 박스 밖 근거리(3), 중앙 페널티 박스 안(3)	중앙 박스 밖 근거리(3), 중앙 페널티 박스 안(3)

이 표가 말해주는 것은, 대한민국이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더 자주 전진했지만, 마지막 터치와 마무리에서 멕시코가 훨씬 효율적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멕시코는 상대 박스 안에서 6번의 터치를 기록했고, 이 중 한 번이 곧바로 득점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9번의 박스 내 터치에도 불구하고, 모두 골문을 열지 못했다.

결론: 효율이 점유를 이긴 90분, 그리고 남은 질문

이 경기에서 더 효과적인 스타일은 분명히 멕시코의 것이었다. 점유율, 패스, 최종 3분의 1 진입 등 다수의 지표에서 대한민국이 앞섰지만, 실제로 골망을 흔든 것은 멕시코였다. 멕시코는 적은 찬스를 최대한 압축해냈고, 루이스 로모의 50분 골은 그 효율성의 결정판이었다. 대한민국은 박스까지의 접근과 볼 소유에는 성공했지만, 마지막 한 번의 패스와 슈팅에서 반복적으로 막혔다. 빅 찬스 3번을 모두 놓친 수치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마무리 단계에서의 집중력과 선택의 질에서 멕시코에 밀렸다는 증거다.

이 결과는 단순히 한 경기의 승패를 넘어, 스타일과 결과의 관계에 질문을 던진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높은 점유율과 패스 볼륨, 그리고 박스 안 진입 빈도는 앞으로의 경기에서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날처럼 마지막 20m에서의 선택이 반복적으로 무뎌진다면, 점유의 우위가 곧 결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반대로 멕시코는 적은 기회라도 박스 안에서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상대가 볼을 오래 소유하도록 내버려두면서도 실질적 위협은 최소화했다. 다음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마무리의 질을 높이지 못한다면, 점유 중심의 전략은 또 다른 벽에 부딪힐 수 있다. 반면 멕시코의 이 효율적 접근은, 적어도 이날만큼은 결과와 내용 모두를 가져왔다. 이 90분의 판정은 '누가 더 자기 방식에 가까웠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골에 가까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데이터 출처: Sofascore 와 명지대학교 스포츠기록분석연구센터 **AI:fficial Soccer** 실시간 데이터 수집 시스템으로부터 생성된 리뷰입니다.



명지대학교 스포츠기록분석연구센터 AI:fficial 로부터 생성된 콘텐츠입니다.